

일본기업들의 이공계 여성인력 유치 경쟁

- 남성 중심의 일본 모노즈쿠리 현장을 변화시키고,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참신한 인재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「리케조」*에 주목하는 일본기업들이 증가
- 전공분야의 미스 매치나 노동환경 개선 등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지만, 아베 정권이 여성인력 활용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 향후 일본기업들 사이에 리케조 유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

□ 활약이 기대되는 리케조














- 최근 일본기업들이 이공계 출신 여학생인 ‘리케조’(リケジョ(理系女), 이공계 여자 약칭)의 채용을 확대, 전문지식을 가진 우수 인재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
 - 카메라와 복사기를 생산하는 코니카미놀타는 1월 23일 리케조를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, ‘13년에 리케조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 히타치제작소는 올해 채용 업종을 연구개발 외에 기술계 직종으로 확대
 - * 미쓰비시중공업, 닛산자동차도 ‘13년부터 리케조를 위한 기업설명회를 실시
 - ** 기업들의 리케조 유치 경쟁이 격화되어 기업설명회뿐만 아니라 공장 견학이나 대학과 공동으로 직업 세미나 등을 주최
- 기업에게 있어 기술 인재의 확보는 연구개발에서 경쟁력을 결정하고, 또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포함한 인재의 다양화가 필요
 - 리케조는 저출산·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일본에서 모노즈쿠리 분야의 추진인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

□ 리케조의 강점과 극복 과제

- 일본기업들이 리케조 채용에 적극적인 이유에는 제품개발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개발현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

- 여성 소비자의 시각에서 본 제품에 대한 의견이나 남성보다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
- 리케조는 결혼·출산 후에도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, 기술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
- 또한 이공계에서 배우는 ‘가설을 세워 실험으로 검증,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’하는 업무프로세스는 어떤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
- 한편에서 리케조를 활용하는 데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아, 기업이나 교육 현장의 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
- 도쿄대학이나 대도시의 고등학교에서는 이과를 선택하는 여학생이 증가하고 있지만, 리케조가 증가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며, 일본의 리케조 비율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낮음
- * '11년 일본의 리케조 인구는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1/3, 한국의 1/2 수준으로 OECD 가맹국 중에서 최하위
- 중·고등학교에서는 수험 준비로 과학실험 등 실기수업이 줄어 실제로 물건을 만들 기회가 없어서 이공계 분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
- * 히타치제작소는 학부모와 함께 참가하는 기업설명회를 개최, 리케조가 이공계 분야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가족의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을 시도
- 기업들이 채용하고 싶은 이공계 인재의 전공분야와 리케조의 전공 분야 간의 미스매치 현상도 발생
- 여학생들은 이공계에서 의약, 간호, 생물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물리, 전기, 전자, 기계를 전공하는 리케조는 극소수
- 모노즈쿠리의 계승자로 리케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계공학분야의 학습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음

< 이공계 분야 여성취업 비율 >

 이탈리아	33(%)
 스페인	32
 뉴질랜드	31
 프랑스	30
 터키	30
 호주	25
 한국	24
 캐나다	23
 영국	23
 독일	22
 미국	22
 스위스	20
 일본	11
OECD 평균	27

자료 : 닛케이비즈니스('13.12.25.)

주 : 2011년 기준

□ 시사점

- 아베노믹스에서 여성 취업을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위미노믹스(Womenomics)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일본에서는 리케조들이 활약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많아질 것임
 -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취업 현장인 기업에서도 리케조를 유치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
-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산·학·관이 공동으로 이공계 인재의 육성을 위한 환경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
 - 식품 또는 화장품 회사에 취업하는 여성인재들은 많았지만, 제조 기업들도 노동 환경을 개선시키면 리케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- 한국의 이공계 여학생 비율은 일본보다 높지만 취업률은 일본보다 낮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케조 활용이 시급
 - * OECD Employment Outlook 2013에 따르면 '12년의 25~54세 여성 취업률은 일본 69.2%, 한국 61.2%
 - 우리나라의 수출품목에서 세계적으로 강점을 가진 한류 상품(화장품, 음악·드라마, 식품 등)은 여성들의 의견을 반영한 상품 개발이 중요하므로 리케조들이 활약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을 것임

<참고자료>

SankeiBiz(2014.1.24), 닛케이비즈니스 온라인(2013.11.6, 12.25), 닛케이신문(2013.10.27)